



警 大 學 報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Press

學訓
祖國
正義
名譽

제 201호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 발행인 박진우 / 주간 최이문 / 편집장 문진수 /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 전화 (041) 968-2114 / www.police.ac.kr

인권경찰, 정의롭고 당당하게 국민의 품 속으로

경찰대학 34기 · 간부후보생 66기 합동임용식

지난 3월 13일 오후 2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 대운동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내빈 및 경찰 지휘부, 임용자 가족과 친지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기 경찰대학생 119명(남109, 여10) 및 제66기 간부후보생 50명(남45, 여5)의 합동임용식이 개최되었다. 합동임용식은 '정의롭고 당당하게'를 표어로 진행되었으며, 경찰대학은 신임 경찰관들이 선배 경찰관들의 위민·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행사에는 모든 경찰의 귀감이 되는 **故 안병하 치안감·故 최규식 경무관·故 정종수 경사의 유족 및 故 이규현 독도의용수비대원 유족을 주요 내빈으로 초청하였다.**

본 행사 시작 전에는 경찰교향악단 공연, 의장대 시범, 아산시립 합창단 공연, 경찰국악대 사물놀이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경기남부경찰청 홍보단에 소속된 김준수 상경이 뮤지컬 모차르트 삽입곡 '나비'를 열창하는 등 행사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고, 본 행사의 시작이었던 국민의례에서도 애국가를 4절까지 선창하였다. 순국선열·전몰 순직 경찰관에 대한 묵념 이후 합동임용식은 성적 우수자에 대한 상장 수여와 임명장 수여, 인권경찰 다짐, 계급장 부착, 임용 선서 순으로 이어졌고, 경찰청장 임용 식사와 대



▲ 임용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대통령 내외와 임용자들의 단체기념촬영

령 축하 그리고 기념 촬영을 마지막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이 날 상장 수여식에서 경찰대학 수석 임용자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은 유호균 경위(만 23세)가 수상하였으며, 간부후보 수석 임용자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은 간부후보생 이은비 경위(만 26세)가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유호균 경위는 "경찰대학에서 4년간 생활하면서 불가능은 없다(Impossible is nothing)는 좌우명으로부터 큰 힘을 얻었다."며 "훌륭한 동기들을 대표하여 제가 과분한 상을 받게 된 만큼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정의롭고 당당한 경찰이 되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포

부를 밝혔다. 이은비 경위는 "되돌아 보니 제가 경찰이 된 것도, 또 이렇게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것도 저 혼자 힘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동기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온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며 후회 없이 살자는 본인의 좌우명을 마음에 새겨 "경찰이 되어서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과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여 후회하지 않는 경찰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경찰관이 된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기억하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년 행사에서는 합동임용식 처음으로 임용자들이 '인권경찰다짐'을 하고 그 다짐문을 경찰인권위원장에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인권경찰다짐'은 169명의 청년경찰이 인

권수호자로서의 포부와 결의를 담은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인권경찰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편 이번 임용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단상 아래로 내려가 경찰 유족 등 주요내빈과 함께 임용자의 오른쪽 어깨에, 임용자 부모님들이 왼쪽 어깨에 함께 계급장을 부착하였다. 지난해까지는 대통령이 임용자 대표 1명에게만 계급장을 부착하고 여타 임용자는 부모님들이 부착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대통령과 주요내빈이 학부모와 함께 임용자 전체에게 계급장을 수여함으로써 청년경찰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임용식의 의미가 한층 부각되었다. 대통령 축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은 국민의 동반자이자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대이다."라

며 인권경찰이자 국민경찰로서의 다짐을 한 임용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전문성과 책임감 못지않게 청년으로서의 정의감과 공감능력이야말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역량이다. 매일 아침 경찰복을 입을 때마다 불의에 맞서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오늘의 각오를 새롭게 다져달라."는 부탁과 함께 "힘들고 고된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는 지표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말해 청년경찰들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역설했다. 경찰대학은 1981년에 입학하여 1985년 졸업한 1기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올해 졸업생 34기까지 4,054명(여자 240명 포함)의 경찰을 배출하였으며,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는 1947년 1년 교육과정을 거쳐 1948년 1기 생 임용 이후 올해 66기까지 4,501명(여자 90명 포함)의 경찰을 배출하였다. 합동임용식에 앞서 임용자들은 지난 3월 7일에는 **故 최규식 경무관 동상, 故 정종수 경사 추모홍상, 아산 현충사를 방문하였고, 3월 10일에는 故 안병하 치안감 추서식에 참석하여 국민경찰로 거듭날 다짐을 더욱 공고히 했다. 앞으로 169명의 청년경찰들이 인권경찰시대의 크나큰 도약의 장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2학년 윤성민 기자
bocc12345@police.ac.kr)

'리더는 소통한다' 경찰대학 지도실

올해 경찰대학은 박진우 경찰대학장과 지도실의 대거 신임인력들과 함께 무술년의 새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과 가장 자주 마주치는 '경찰대학 지도실'은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새롭게 바뀐 지도교수들로 구성되었기에, 지도실은 학생들과 지도교수들이 서로를 잘 모른다는 데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에 학생들과 간격을 좁히려는 지도실의 노력이 학생들에게 알려져, 그것이 하루빨리 성취되기를 바라며 지난 2월 28일 오종학 지도실장(이하 지도실장)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지도실장은 학생들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한 측면과, 지도실의 목표에 대한 측면에서 각각 '소통'과 '리더'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먼저 '소통'에 대해 지도실장은 "스스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며 학생들과 지도실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 4학년 대표자도 자신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찾아오라."며 본인과의 허물없는 대화를 부탁한 바 있다는 말도 전했다.

다음으로 지도실의 목표에 대해서는 '리더의 경찰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지휘자의 역할



▲ 경찰대학 오종학 지도실장(가운데)과 지도교수

이 된다는 설명과 함께 지도실장은 "(경찰대학생들)조직 내의 리더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리더로 길러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도실장은 "조국·정의·명예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그 추구 과정에서 실천 강령 등 변하는 것들이 있다."며, "학생들이 이를 구분해내는 능력을 함양하고, 앞서 말한 '소통'과 '리더'의 가치를 양보와 배려의 자세로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렇듯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를 위해 지도실은 계속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지도실의 변화에 호응해 앞으로 본교 학생들이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지도실과 '소통'해 나가기 바란다. 한편 지도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학생들이 발언권과 학생자치의 기반을 다져 학교의 긍정적인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2학년 윤성민 기자
bocc12345@police.ac.kr)

2018년 임용식을 빛낸 청년경찰들

'철통' 사이버안전·보안전문가 : 김형규 경위

경찰대학 출신 임용자 김형규 경위는 사이버 전문가의 꿈을 이루고자 경찰대학에 입학하였다.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관하는 'Imagine Cup(소프트웨어 경진 대회)' 한국 최종 본선 3차 진출을 시작으로 하여, 2016년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주관 차세대 정보보안 리더로 선발되어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동계 디지털포렌식학회 세션발표 및 제출한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김 경위는 2017년 보안컨퍼런스 'CODEGATE' 세션 발표, 해킹방어대회 'HDCON' 본선 참가 및 동계 디지털포렌식학회 세션 발표에서 발표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2018년에는 디지털포렌식학회에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는 등 사이버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김 경위는 "첨단사회에서 경찰의 역할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많은 경찰 선배들이 일



▲ 김형규 경위

선에서 사이버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사이버 수사 경찰의 꿈을 키웠다."라며 "임용 이후에도 학업에 정진하여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능한 경찰이 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약자와 함께하는 봉사우수자 : 백진우 경위

간부후보생 출신 임용자 백진우 경위는 검정고시 학원에서 만났던 쉼터 소속 학생들의 이픔을 보며,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간부후보생에 합격하여 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후, 백 경위는 검색을 통해 아산지역 쉼터를 찾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었다. 백 경위는 "작년 4월부터 아산지역에서 시작한 봉사활동으로 가족 같은 동생들과 만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행복했다."며 "임용 후에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백진우 경위

강인한 신체·따뜻한 마음, 무도우수자 : 임동건 경위

경찰대학 출신 임용자 임동건 경위는 '국제 파쿠르 코치' 자격증을 소유한 이색적인 경력의 소유자이다. 다양한 장애물들을 활용하며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훈련인 파쿠르에 흥미를 느껴 자격증까지 따게 된 임 경위는 2017년 하남시 교육청 주관 멘토링 캠프에서 파쿠르 수업을 진행하였고, 강남 파쿠르 협회장을 맡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활동하고 있다. 또한 임 경위는 2015년 남양주에서 개최한 합기도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무도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우수한 인재이다. 임 경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항상 남을 위하는 이타주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심신 또한 단련하여 국민들이 보고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하고 강인한 경찰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학년 윤성민 기자
bocc12345@police.ac.kr)



▲ 임동건 경위

성큼 다가온 지방분권 시대, 지방분권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행정학 박사님과의 1:1 인터뷰

개헌 논의가 정치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개헌 시기 등 형식적인 부분과 권력구조개편, 지방분권 등의 내용적인 측면도 논의 중이다. 개헌 논의에서 지방분권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지방자치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중앙은 외교, 국방 등에 집중하고, 지방은 복지, 주거, 환경, 교육, 문화 등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

지방분권의 도입은 기존 중앙집권적 시스템의 부작용과 관련이 깊다.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예산 집행과 정책 실행 등이 불투명하고 부정부패의 가능성도 높다. 또한,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통제하려고 하니 과부하에 걸려 낮은 수준의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지방마다 실정이 다르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정부는 권한이 없기에 지방의 실정에 맞는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고자 지방분권이 도입되었다.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주민자치권, 자치조직권 등의 권리를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지방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 공화국'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사항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 구성을 양원제로 바꾸는 방안 역시 고려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헌법 제117조, 제118조에서 지방자치가 명시되었다. 하지만 두 조항에는 실제

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현행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법령에 의해 지방의 조례제정권에 한계가 많아 자율적인 지방자치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는 형식적이고 지방정부는 중앙 의존적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실행된다면 형식적이고 중앙의존적인 현재의 지방자치체에서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새로운 지방자치체를 보장할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신 금창호 행정학 박사님과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지방분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 지방분권의 원칙으로 언급되는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자율과 책임, 참여의 원칙에 관해 설명해 달라.

보충성의 원칙은 사무배분에 있어서 지방이 주민사무를 우선 처리하고, 지방이 감당할 수 없는 사무만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간이 잘하는 업무는 국가가 할 필요가 없다. 정부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방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국가가 할 필요가 없다. 아쉽게도 현재는 잘 안 지켜지는 원칙이다. 포괄성의 원칙은 사무와 함께 재원과 인력을 동시에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줄 거면 확실하게 주자는 의미이다. 자율과 책임, 참여의 원칙은 지방에 자율적인 권한이 부여되면 책임도 함께 부여되며, 그때의 권한과 책임은 주민참여를 통해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지방분권이 어떻게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가?

지방의회가 실시간으로 감시할 것이다. 현재의 지방의회는 너무 힘이 없지만,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지방의회가 힘이 세져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된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 검찰, 경찰 등의 다른 감시 주체도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 정도이고 국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재원이 부족한 지방으로 재분배한다. 이런 구조는 지방이 스스로 재원을 조절하기 어렵게 해서 지방을 중앙에 예속화시킨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원의 재조정이 필요할 텐데, 국세와 지방세가 어느 정도 비율로 재조정되어야 하나?

우선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현황은 언급한 것이 정확하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 세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조정은 실제 지출되는 구조에 더 가깝게 해야 한다. 재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세입구조를 국세 6 지방세 4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자치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준다면,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 등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이나 인권을 등한시할 위험은 없는가?

자치재정권을 통해 지방정부는 세원신설과 세율조정을 할 수 있다. 세원신설의 예로 제주도 관광세를 들 수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많기에 제주도 지방정부가 관광세를 부과한다면 많은 세입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세율조정은 기존에 존재하던 세금의 비율을 올리거나 내려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환경권과 노동권을 등한시할까 봐 걱정하는 것은 기우다.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세율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는 지역의 특성을 보는데 그 특성에는 세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교통, 환경 등 여러가지가 있다. 환경이 좋지 않고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도시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즉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현재는 인구비례적 대표제도로 수도권 지역 의원의 수가 비수도권 지역 의원의 수보다 많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시행된다면 수도권 위주의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원제 도입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에 관해 설명해 달라.

대표에는 인구대표와 지역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역대표가 없다.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인구대표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정해 선출하고 있다. 지금 이 상태로 지방분권을 하면 수도권 의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사회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대표를 뽑아야 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상원이다. 즉 기존의 인구대표에 더해 지역대표를 두는 양원제를 도입해야 균형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 양원제 도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가져오며 국가 전체의 대표성을 향상할 수 있다.

○ 지방분권의 핵심이 인구증가라고 이전에 한 세미나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지방분권과 인구증가의 관계를 설명해 달라.

우선 인구증가는 결과적인 것이다. 인구수는 가시적이고 명확하다. 강남 3구에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인구가 모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에 그렇게 사람이 모인다. 그 무언가는 아마도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의료이 될 수도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힘이 세지고 자체의 혁신을 통해 무언가를 갖추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인구증가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원인도 될 수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 지방이 더 발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선순환이다. 반대로 악순환도 존재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은 더 쇠퇴하고, 지방의 쇠퇴는 인구의 감소를 가져온다.

○ 그러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그 악순환을 없앨 수 있나?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지방분권이 인구감소의 악순환을 완전히 해결하거나 지방분권을 통해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악순환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는 있다. 물론 낙오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국가(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균형발전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지방분권이 성공하려면 주민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낮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우선, 관심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보통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에 누가 있는지는 거의 모른다. 이걸 보면 관심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심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민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교육과 홍보를 활발히 해야 한다. 주민들 역시 지방자치 교육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신속성, 투명성과 효율성, 지방 실정에 맞는 정책, 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그렇기에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도시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양원제 도입의 현실성 등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점 역시 많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 간의 건설적인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장점은 살리고 우려되는 점은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지방분권 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2학년 권준수 기자 soon9624@police.ac.kr〉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필요성과 경제성의 균형점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자에게는 지하철을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하철 요금에 50%의 할인을 제공하던 것이 1982년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50%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되었고, 1984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무료로 지하철에 탑승하도록 수정되어 현재까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하철은 노인들에게 대화의 상대를 찾기 쉬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매체이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수단이다. 노인 택배라 하여 지하철을 타고 택배를 배달하는 등 이동의 자유로움으로 여러 활동이 가능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효과도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이렇듯 노인 복지를 향상하는 차원에서 유용성이 있다.

하지만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무임승차 대상이 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의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UN 규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는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한바, 2018년 2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 무임승차 인원 역

시 이에 따라 증가해왔다.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최근엔 특히 그 증가율이 가파르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무임승차 인원은 2011년 1억 6,943만에서 2017년 2억 8,460만까지 증가하였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철도회사의 적자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국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에 따르면, 2016년 지하철 순 손실액 8,395억 원 중 무임승차 손실액은 5,543억 원이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무임수송 대상자 중 노인의 비중이 80%를 넘어서므로, 노인의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와 혜택을 받는 대상을 고려해볼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무임승차 제도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노인들만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개발이 덜 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 차별로 작용한다. 모든 사람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으므로, 복지제도를 통해 환경적 여건이 부족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국가의 개입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다면 노인 복지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도시에서 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이 아니라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의 노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임이라는 인식이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공유지의 비극'에서 목초지가 황폐해진 것처럼, 단지 무료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목적 없이 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로 인해 여건 상 지하철을 꼭 이용해야만 하는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 '지옥철'을 겪는 직장인들에게는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지하철에 탑승하게 하는 제도는 특히 심리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반면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노인들의 무임승차와 철도공사의 적자는 관련이 없다고 항변한다. 지하철 운영은 생산의 유연성이 없어, 노인의 승차를 배제한다고 하여 수송비용이 비례하여 감소하거나 유임 승차분이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 지하철 적자문제는 노인 무료승차제도와 별개로 존재하는, 무분별한 증설과 고급화에 따른 방안 운영의 결과라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노인 복지 논의의 필요성은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2017년 OECD가 내놓은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

라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초고속으로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사회적 준비는 아직 미비하며, 노인의 복지는 구조적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유지하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운임 요금의 분배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자가 늘고, 수익 증가가 미미한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비 증가로 적자 규모가 늘고 있어 운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지하철 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이 떠오르고 있다. 바로 이 시기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의 선례를 참고하자면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미국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에 따라 50~100% 할인을 제공한다. 영국은 60세 이상에게 출퇴근 시간 외 무료, 프랑스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계층에 출퇴근 시간 외 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타협안 중에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하지는 타협안에 비판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존재한다.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효율적이지 않으니 선별적 대상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논리에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는 지원 대상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가피하게 초래한다. 의료보험이나 의무교육처럼 조건이 되는 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하되, 경제적 능력이 있는 대상에게 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헌법에서 천명한 복지국가의 발전에 바람직하다.

방향성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역시 복지 제도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에 제한을 두고 무임수송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하철 복지가 세대 간 갈등과 비경제성으로 인한 폐지의 위험으로부터 보전되기를 바란다.

〈2학년 노영민 기자 20170033@police.ac.kr〉

치안 강국을 위한 끝없는 배움

우리 대학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 과정의 운영과 더불어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사회의 여러 위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임용 후에도 끝없는 배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에서 경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직급과 교육 내용에 따라 경정·경감 기본교육과정, 치안정책과정, 위기협상전문화과정으로 나뉜다.

경정·경감 기본교육과정

경정·경감 기본교육과정은 직급별 역할에 걸맞은 역량을 함양하여 현장 중심의 치안전문가를 육성하고 업무 중심의 조직 문화를 선도하는 지도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교육과정은 직무 과목 이수시간 38시간과 소양 및 기타 과목 이수시간 37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무 과목 중 실무교육 일부에서는 기능별로 생활 안전, 수사, 정보, 경비, 교통 5개 직무 분야로 분반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사격술, 심폐소생술 등 치안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시행한다. 소양 과목에서는 생활체육, 건강특강, 봉사 활동, 문화체험 등의 활동

들을 시행함으로써 교육대상자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정·경감 기본교육과정은 경정 또는 경감 계급(승진후보자 포함)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며 2주간 75시간의 교육을 한다. 교육대상자들은 대학 내의 직무생활관에서 합숙하며 교육을 받는다. 본 교육과정의 이수를 위해서는 전체 수업의 90%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 평가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이고 평과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어야 하며 생활지도 점수가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본 교육과정 이수자들은 각자 직무에 맞는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치안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안정책과정

치안정책과정은 융합 행정을 통한 치안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직의 핵심 지도자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교육 대상자는 현직 경찰관인 총경(승진후보자)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서기관이나 군 대령 등 타 정부 기관의 고위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이는 좋은 치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이



▲ 입교 첫날 현충원에서 참배하는 제37기 치안정책과정 입교자들

외의 정부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근거한다.

치안정책과정은 총 106과목 851시간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생들은 외국어, 정책연구, 현장학습, 생활체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먼저 교육생들은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는다. 또한 참여식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한다. 올바른 공직 가치, 인권, 나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인문학적 교양을 함양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본 과정의 수료 요건은 경정·경감 기본교육과정과 동일하다.

위기협상전문화과정

위기협상전문화과정은 물리력이 아닌 협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위기협상전문화과정은 55시간의 직무 과목 이수 시간과 15시간의 소양 및 기타 과목 이수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직무 과목에서는 위기협상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에 관해 연구한다. 예를 들면 자살 기도자나 정신질환자의 심리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

으로 가정폭력 인질 상황, 자살 기도 위기상황, 인질강도 위기상황, 정신질환자에 의한 인질 위기상황 등을 가정한 역할실습을 시행한다.

위기협상전문화과정은 경정 이하의 경찰관 중 경찰 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이 입교할 수 있으며, 2주 동안 70시간의 교육을 시행한다. 본 교육과정 수료 요건은 타 과정과 같다. 위기협상전문화과정 이수자들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물리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대화와 공감을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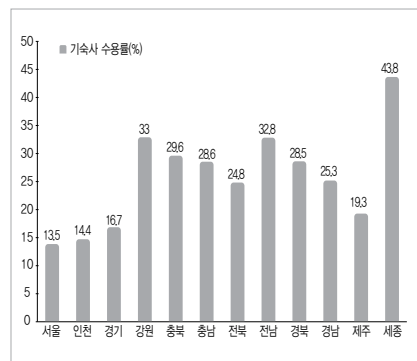
공무원 조직은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자주 문제가 되어 왔다. 인사혁신처가 의뢰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로 무사안일주의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경찰대학의 직무과정은 경찰관 재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직무과정이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선진적인 경찰 조직 문화를 선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학년 강윤석 기자 5800ys@police.ac.kr〉

대학생들의 소중한 보금자리

경찰대학은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전념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교생 모두가 기숙사를 사용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기숙사 관리의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데 생활관마다 학생장과 자치장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발하여 그들이 생활관의 인원 및 시설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매주 두 번의 생활점검을 통해 모든 생활실의 생활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생활점검은 신입생 적응 교육인 청렴교육에서도 강조되어 교육될 정도로 대학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많은 대학도 있고 학생 수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학도 여럿 존재하였다. 그렇지만 대학 대부분에서는 재학생 중 일부만 대학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뿐이었다. 서울시 소재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13.53%로 특히 기숙사 부족 현상이 뚜렷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기숙사 수용률이 8%에 불과하여 입사 경쟁률(기숙사 지원자 수/수용 가능 인원)이 5대 1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 지역별 기숙사 수용률 그래프 (2017년) (출처: 대학알리미)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함에도 기숙사를 신축하지 못하는 것은 조망권 침해, 안전 문제, 환경 악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대학이 주변의 많은 사람이 노후 준비를 위해 임대업에 뛰어들다. 통계청에 의하면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60세 이상 가구 수는 2016년 기준 약 42만 7천 가구였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약 54%가 증가한 수치이다. 기숙사가 신축되면 대학이 원룸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원룸 사업자들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호소문을 배포하는 등 기숙사 건립 반대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학생들은 대학이 원룸 가격이 너무 비싸

서 아르바이트로는 감당하기 힘들 지경이라며 기숙사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2017년 8월 기준 서울 시내 대학가 10곳의 매물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룸의 평균 보증금은 1,378만원이고 평균 월세는 4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대부분의 대학생으로서는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 한양대학교 기숙사 신축에 찬성하는 총학생회와 반대하는 지역주민 (출처: 뉴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대학이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주거권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모두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대학,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한 소통을 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학년 황연준 기자 duswns1643@police.ac.kr〉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승리를 위한 끝없는 열정

현재 경찰대학에는 경찰의장대, 경찰교향악단, 무궁화체육단 등 의무경찰 신분으로 자신의 특기를 살려나가는 대원들이 많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그 중 무궁화체육단에 소속되어 있는 축구팀이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야 했고 프로 축구선수로 활동 중이어야 한다. 실제로 수원 삼성, 울산 현대 등 국내 유명 프로축구팀에 소속되어 있던 선수들이 현재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개테스트를 통해 선발된다. 염기훈 선수, 오범석 선수, 정대훈 선수 등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활약했던 선수 중에는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에서 활동했던 선수들도 다수 있다. 축구단에 선발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축구 훈련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축구선수이기 이전에 경찰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4주간의 군사 기본교육과 3주간의 경찰 기본교육을 모두 마쳐야 한다. 이 외에도 강설 시에 쌓인 눈을 치우는 등의 환경 미화 작업을 수행한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K리그 챌린지 대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년에 정규라운드만 36경기를 치러야 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선수들 개개인이 열심히 훈련할 뿐만 아니라 감독, 수석 코치, 피지컬 코치, 의무트레이너 등이 체계적으로 선수단의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K리그 챌린지 대회에서 총 10개의 프로 축구팀 중 3위를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경찰대학생과의 교류도 여러 번 있었다. 2017년 경찰대학 청람제전 때에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선수들이 재학생 대표 선수들과 축구 경기를 하였다. 체전이 더욱 흥미로워졌고

재학생 대표 선수들이 축구에 대한 수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2017년 11월 15일에는 경찰대학 학생들이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중요한 경기에 응원하러 가서 승리를 돕기도 하였다.



▲ 축구단의 경기에 응원을 하러간 경찰대학 학생들 (출처: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공식 홈페이지)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충청남도 유일의 프로축구단으로서 축구 산업 진흥, 여가 선용 기회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축구 꿈나무 육성, 지역 사회 공헌 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아산초등학교, 동방초등학교, 온양온천초등학교, 충무초등학교 외 수많은 학교를 방문하여 '비타민 스쿨'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역 아동의 체력증진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지역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스트레칭을 도우며 선행을 베풀기도 하였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이렇듯 축구단으로서의 본연의 업무 외에도 학교와 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비록 개개인의 선수들은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에 1년 9개월 동안만 소속되어 있지만 그들이 이 시간을 통해 봉사과 나눔의 즐거움을 느꼈으면 한다. 더 나아가 전역하고 프로 선수 생활을 할 때도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공헌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

〈2학년 강윤석 기자 5800ys@police.ac.kr〉



▲ 청렴교육 중 생활점검을 하는 38기 신입생들 (사진제공: 법학과 2학년 안준호)

다른 대학 또한 대부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기숙사 운영이나 관리의 보통 학생들이 납부한 기숙사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동구역 청소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경찰대학 학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는 없으므로 기숙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를 아예 운영하지

경찰은 인공지능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 4차 산업혁명의 화두로 부상하는 인공지능

2016년 세간의 이목을 끌며 모았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이 이루어지고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의 준말)이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개발 등의 능력을 컴퓨터로 모방해낸 것을 말한다. 이는 빅데이터, 로봇산업, 사물인터넷 등의 여타 4차 산업혁명의 주류 기술들과 융합하여 응용되고 있다. 각 4차 산업혁명 기술들과 융합된 인공지능은 이미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이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은 그동안 성장을 거듭하여 번역, 의료,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이미 상용화되었다. 마찬가지로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는 경찰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혹은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사회가 올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인공

능이 경찰 인력을 대체하여 경찰의 규모가 줄어들게 될지와 기계에 법적 판단을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경찰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 알아보려고 한다.

빅데이터를 통한 범죄예방

영화 ‘마이내리티 리포트’에서는 주인공이 최첨단 치안시스템 ‘프리크라임’을 통해 범죄가 일어날 장소, 시간, 범주를 저지를 인물까지 예측하여 범죄를 예방한다. 2054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 속 모습은 감독의 생각보다 조금 더 일찍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미국 LA,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는 범죄예측 프로그램인 ‘프레드폴’(PredPol: Predictive Policing의 준말)을 이용하여 치안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미국 UCLA의 인류학자 제프 브랜딩엄 교수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과거에 범죄가 일어난 시간, 날씨, 장소 등과 범죄의 유형을 인공지능이 비교·분석하여 향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확률로 알려준다. ‘프레드폴’을 도입한 이후 LA에서 절도범죄는 13%, 강도 범죄는 22% 감소했다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인공지능이 용의자의 재범행률을 계산하여

용의자 구금의 여부와 시간, 방식 등을 알려주고 있고, 예측 정확도가 88~98%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중국에서도 GPS와 CCTV를 이용하여 범죄자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경찰은 범죄예측 시스템 클루(CLUE)를 2019년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범죄예방 시스템이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사후조치 성격이 강했던 경찰 수사에서, 범죄예측시스템을 통해 사전예방을 더 강화하여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 경찰의 등장

얼마 전 로봇으로는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로봇 ‘소피아’가 화제가 되었다. 이제 사람의 명령에 단순히 따르는 로봇에서 발전하여, 스스로 판단을 내리며 인간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예전 산업혁명 시대의 기계는 수공업자의 일자리를 대체하였다. 이처럼 현재 인공지능이 로봇에 탑재된다면 현대사회에서도 단순히 물리력을 사용하는 노동뿐만 아니라 판단력이 있어야 하는 직업마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기차역에 로봇 경찰을 배치하여 수배자의 얼굴을 인식하거나, 승객들과 간단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두바이에서도 6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로봇 경찰을 통해 범죄신고, 벌금납부 등이 가능해졌고, 2030년까지 경찰 인력의 25%를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봇 경찰을 통하여 야간 순찰의 안전문제나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 등은 교통위반 단속, 광범위 순찰업무, 범죄 용의자 감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경찰 인력으로는 총당하기 힘들었던 단순 업무들을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경찰 업무의 과중을 완화



▲ 경찰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로봇 경찰

하고, 더 전문화된 분야에 인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차 산업, 특히 인공지능이 활용된 신기술은 기존 경찰의 부족한 점을 메워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안 효과를 거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범죄예측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이 지목하는 범죄우발 지역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저소득층 거주 지역, 소수인종 등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비판 또한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이나 인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력을 더 투입하는 것만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인종 등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차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도입과 수용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내려져야만 한다.

그런데도 4차산업혁명의 산물인 인공지능은 지금까지의 치안정책에 혁신을 불어 넣어줄 지평을 열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하여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고 있었던 경찰 인력을 절약하고, 조금 더 전문적인 경찰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비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학년 안준호 기자
ahnjuno96@police.ac.kr〉

젠트리피케이션, 관광지의 이면

가로수길, 경리단길, 이화 벽화마을 등 이름만 들어도 푹푹하고 소박한 문화가 꽃피어있을 것 같은 지역들이 변화하고 있다. 사실 일부는 이미 변해버렸다. 예쁘고 아기자기한 벽화로 유명했던 이화 벽화마을은 예전 유명했던 벽화들 위에 페인트를 덮어 놓았고, 새로운 벽화를 그리지 못하도록 경고장을 붙여놓았다. 해당 지역이 명소가 되는 것은 보통

곳을 가나 현대식으로 꾸며져 싫증을 느끼는 사람들 또한 생겨났다. 발전된 현대 문명사회에 사람들은 오히려 예전 아날로그 시대의 향수를 그리워하게 된 것이다.

자연스레 그 기대에 부응한 몇몇 동네와 골목에는 관광객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그 지역 상권 또한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다. 관광객들이 몰려들자 소음, 쓰레

을 얻으면서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 임대료 등이 상승하여, 그 지역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상가를 접고, 그 자리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가게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위의 문제 중 전자를 주거시설의 ‘젠트리피케이션’, 후자를 상업시설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중산층을 뜻하는 ‘gentry’가 특정 지역으로 유입된다는 뜻이다. 이는 낙후된 구도심에 중산층의 유입이 활성화되며 기존의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하여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들끓으며 활기를 띠게 되지만, 오히려 그 지역에서 원래 살아왔던 주민과 장사를 해온 상인은 주거환경 문제를 견디지 못해 떠나거나, 설 자리를 잃고 쫓겨나게 된 것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도시 라이프스타일이 우리 경제의 미래다. 골목길 산업을 미래 창조산업, 문화산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역 문화를 형성할 순 없지만, 시스템을 제공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관광객유치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왔던 원주민들의 생활이다. 도시정책을 고안할 때에는 원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거대상권과 주민들이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지역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학년 안준호 기자
ahnjuno96@police.ac.kr〉

현대인 삶의 무게추는 어디로 기울는가

최근 ‘워라밸이 망가졌다.’, ‘워라밸 지켜지는 삶.’ 등의 말이 종종 들리고는 한다. 여기서 말하는 ‘워라밸’이란 ‘일과 삶의 균형’, 즉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이다. 한편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야근과 초과근무를 해서라도 경제성장에 힘을 쏟던 한국사회에 어떤 바람이 불어 닥친 것일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 되었고, 개인들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직장인들은 자연스레 생계에 대한 걱정보다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직장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다.

정시퇴근제, 야근 추가수당제 등을 도입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현대인이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에서 퇴근 시간이 되면 PC 전원을 모두 끄는 섣달을 시행하더라도 결국 이는 재택근무로 이어지고, 오히려 직장과 집의 경계가 모호해져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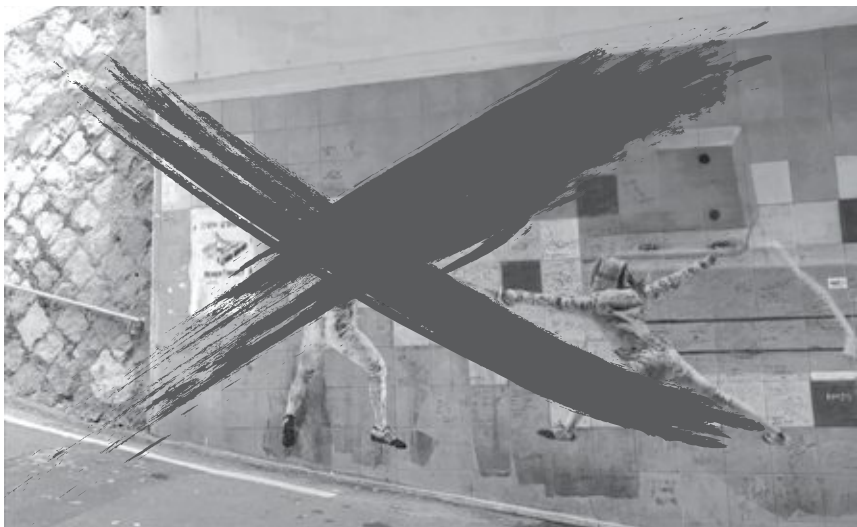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일과 삶의 균형 지수는 4.7로서 조사대상 38개국 중 35위에 머물렀으며, 1위 네덜란드(9.3)와 비교하면 절반에 겨우 미치는 점수였다. 이렇듯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해져 가는 일과 삶의 균형문제의 원인은 고용 확대를 피하는 기

업과 일과 삶 경계의 모호성,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국회에서 카카오톡 업무지시를 금지하거나 이에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직장 업무가 개인의 생활영역까지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노동제재대상인 기업 이외에도 자영업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반강제적인 노동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 최윤경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일과 삶의 균형은 매우 열악하지만, 소상공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됨으로써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과도한 생계부담을 감경하는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업이 고용증진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기업에서는 주당 근무시간 내에서 자신이 근무할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나,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고 성과로만 실적을 평가하는 ‘책임근무제’ 등의 대체방안을 모색하여 자율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적으로는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연차 등 휴가의 당연한 사용’ 등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려는 배려가 필요하게 보인다.

〈2학년 안준호 기자
ahnjuno96@police.ac.kr〉



▲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화 벽화마을 (사진제공: 행정학과 2학년 정찬)

그 지역 상권에도 발전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지 알아보려고 한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신도시에는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복제’라는 뜻을 가진 ‘Duplication’이란 사회용어로 급속도 발전의 여파로 획일화되어버린 문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현상으로 인해 건물, 음식, 골목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어느

기, 낙서, 무분별한 촬영 등으로 인하여 그곳에 원래 살던 주민들은 생활에 방해받게 되었고, 이를 견디다 못해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한 지역의 상권이 부흥하자 오히려 가게 임대료가 상승하여 원래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동네를 떠나야 하며, 그 빈자리는 대형 기업이 대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태원의 경리단길도 예전에는 높은 서울 월세를 피하여 장사를 하려던 사람이 몰려던 곳이었으나 명성

예술과 사람을 연결하다, 미술서(美術書) 작가이자 큐레이터 이일수 인터뷰

독립 전시 기획자이자 작가인 이일수 씨는 그림을 통해 지적 유희와 감정적 치유를 전하고자 전시 기획, 글쓰기,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미술관 겸 갤러리인 하나코 갤러리를 운영했으며, 2006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하나코갤러리 관장을 역임하였다. 2010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SBS에서 기획전시 감독으로 근무하였다. 저서로는 '즐겁게 미친 큐레이터' 등 모두 11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일민미술관에 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이일수 작가

Q 오랫동안 책 집필과 전시기획을 병행하고 계시는데, 작가님께 '큐레이터'란 무엇인가요?

먼저 '큐레이터(Curator)'라는 명칭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큐레이터는 공익의 목적으로 운

영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근무하며, 예술작품에 관련된 일화, 동시대 시각예술의 흐름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작품 연구 및 전시와 교육의 과정으로 이끄는 학예사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한편 수익의 목적으로 경영하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진행하는 사람은 '갤러리스트(Gallerist)' 혹은 '딜러(Dealer)'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익 목적과 사익 목적의 전시기획자들을 통칭해서 큐레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물관과 갤러리에서 전시기획을 하고 있고, 예술과 사회를 잇는, 미술과 사람을 잇는 큐레이터가 되고자 합니다. 시각예술에 구현된 삶의 흔적을 통해 동시대 삶을 재해석하며, '사람이 그림을 감각적으로 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갑니다.

Q 어떻게 큐레이터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미술작품에는 지적 유희, 감정적 치유 등 대중이 경험하면 좋을 긍정적 매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미술을 아직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중을 위해 전시장들의 문턱도 많이 낮아졌고, 미술 해석 관련 도서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지만, 제가 일을 시작할 때 전시장은 전공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

그였습니다. 미술전공자로서, 미술의 긍정적 힘을 경험한 한 개인으로서, 미술과 사회를 잇는 역할을 하고 싶었고, 그런 관점에서 전시 기획은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작품 속 배경 이야기를 담아 깊이 전하기 좋고, 기획전시를 통해서도 작품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방식을 통해 미술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Q 큐레이터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사람들과 동행하는 미술적 실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메일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미술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라거나 "삶에 필요한 미술적 사색을 경험하게 해줘서 고맙다." 라는 내용이 많고, 어떤 분은 "현재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열여섯고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전시 기획을 통해 작품을 소개하는 과정도, 책 집필을 통해 소개하는 과정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환경에서도, 일면식도 없는 타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에 제가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느낄 때 보람을 느낍니다.

Q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끼실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큐레이터의 직업적 이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술작품을 소개하는 과정, 즉 작품의 예술적 측면을 생각한 것이고, 둘째는 대중에게 미술적 경험들을 제공하여 관람객 수치가 높아지고, 성숙한 시민으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전시를 열기 위해서는, 각 문화유산부터 동시대 작품들까지의 지식과 작품의 배열 하나하나까지 생각해가 해서 큐레이터의 엄청난 시간과 지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적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 정신적 가치를 생산하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국가의 경제성장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예시로 공기업과 대기업이 진행하는 전시기획의 큐레이터나 벽화 그리기 공공사업에 투입된 화가에게 재능기부를 적지 않게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경제적 문제는 개인의 생활을 위한 보수 문제이자, 한 국가의 전시기획 수준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또한, 큐레이터들의 열정도 불구하고, 관람객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관람티켓 구매를 망설이는 모습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예술의 우아함이 존재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숙한 실천은 아직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 정신적 가치를 생산하는 일의 중요도를 인식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한국미술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Q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고민하는 경찰대학생들을 위해, 큐레이터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어떤 직업적 선택을 하든,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경찰대학에서 생활할 후배들은 개선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모양으로든 작은 돌다리 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큐레이터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술과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적 측면을 생각할 때, 직면할 사고와 사건의 실마리를 풀아가는 데 필요할 지적 능력을 갖추는 데 미술에 구현된 다양한 삶의 흔적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범죄사건 현장에서 누적될 감정적 문제들의 치유에도 미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 김병준 기자 kbj33333@police.ac.kr)

“SAFE KOREA” 실현을 향한 힘찬 발걸음, 이규선 아산소방서장 인터뷰

이규선 아산소방서장은 1987년 소방사 공채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공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행정안전부 세종시 출범준비단 소방방재팀장,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장 등을 거쳐 서천·계룡 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 경찰대학이 있는 아산시의 소방서장으로 취임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을 화재로부터 지켜온 그를 찾아가 소방관으로서의 경험, 경찰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 등을 들어보았다.



▲ 이규선 아산소방서장

Q 어떻게 소방관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보통 소방관이 되려고 하면 투철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소방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일종의 업(業)으로서 소방관을 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처음 소방관이 되려고 할 때,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직업으로써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방관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선 국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이 있고, 그 과정에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점차 소방관이라는 일을 진심으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Q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대단한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낀다기보다는,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현장에서 순간순간이 소방관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고 국민이 보내주시는 성원과 사랑 하나하나가 전부 보람이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활동 이외에도 후배 소방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뿌듯함을 느끼고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우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소방관으로서 지켜야 할 국민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장 안타깝고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대응을 잘했다면, 우리가 좀 더 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러한 피해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소방관으로서 가장 힘들고 아쉬운 순간들이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소방관으로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에 소홀해질 때가 많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제가 더 노력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가정에서도 더 사랑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대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Q 경찰대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졸업을 하면 경찰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들어가게 될 텐데, 조직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이라는 조직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존재 이유와 목표가 있고, 경찰 조직의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 사회의 질서 유지 정도가 되겠죠. 조직의 목표보다 중요한 건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그 목표를 인지하고,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조직구성원 개인 개인의 역량은 전부 다르기 마련인데, 구성원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의식하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성원 중 한 명만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조직의 발전에는 큰 제약이 있고, 따라서 구성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듯이, 국민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조직의 주요 업무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지면 더 노력하고 변화해서 그것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민도 우리를 더 사랑해주고 성원을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갔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김병준 기자 kbj33333@police.ac.kr)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의 결과물, 형법을 배우다 류부곤 교수 인터뷰

류부곤 교수님이 경찰대학에 오신 지 6개월이 지났다. 교수님은 대학에서 강의하실 뿐만 아니라 각종 학술 세미나 개최,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교수님을 찾아가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형법 교수가 된 이유 등을 물어보았다.



▲ 류부곤 교수

Q 교수님만의 강의 철학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같이 가기'입니다. 교수와 수강생이 강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강의입니다. 이를 위해 주로 두 가지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공감입니다. 개념 설명이 필요하다면 개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간접 체험하게 해주고, 그러한 사례를 공감하게 함으로써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재미입니다. 재미없이 흥미가 생기기 어렵고, 흥미없이 의욕이 생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강의는 한 편의 연극이자 드라마라는 생각으로, 진지함보다는 유쾌함을 강의에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Q 경찰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현재 시점에서 인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대학 학생은 직업이 정해진 것 같은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 자체를 할 기회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대 초반에 내 인생에 대해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은 가까운 일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늘어났고 인생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과거보다 늘어났습니다. 경주마와 같이 채찍에 맞춰 앞만 보고 달리다가,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직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문하면서, 꼭 짜인 생활이지만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3학년 신유정 기자 sinnew1092@police.ac.kr)

Q 형법을 지도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야 중 형법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찰의 성과물입니다. 형법에서 다루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면면을 보여줍니다. 법학이기에 중국에는 어떠한 행동이나 상태가 규범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내려야 하겠지만,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과 아울러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사람이 가지는 존재의의에 관한 종합적인 탐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에 관한 탐구가 가지는 매력, 이게 제가 형법을 연구하게 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점점 잦아지는 지진 발생... 위협받는 한반도, 지진이 발생하는 원리는?

우리나라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며 지난 11월에는 수능까지 일주일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경주, 포항 등 경상북도 일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진 때문에 주민들이 지진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와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진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지진의 구조 (출처: 브리태니커 비주얼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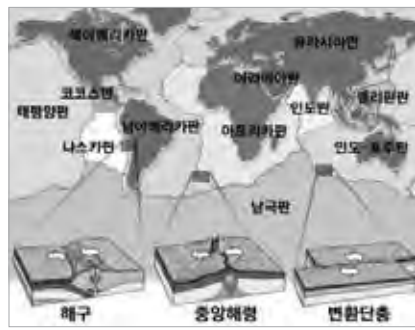
지진이 일어나는 원리

지진은 왜 일어날까? 기본적으로 지진 에너지의 근원은 탄성 반발(Elastic Rebound)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해저가 확장하고 대륙이 이동하는 등 지각이 움직이며 지층이 휘어지는데, 점점 힘이 축적되어 더 이상 휘어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변형된 지층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 하면서 지층이 끊긴다. 지층이 끊긴 지점에 단층이 형성되며, 이 반발력에 의해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나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근원지를 진원(Earthquake Focus)이라고 하며, 진원에서 수직으로 연결된 지표면상의 위치를 진앙(Epicenter)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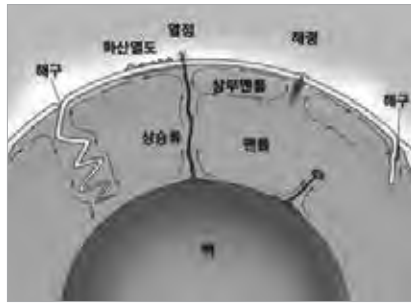
지진대와 화산대

지진은 지각의 움직임 때문에 일어나는 탄성 에너지의 축적으로 인해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 지각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각이 움직이는 이유는 판 구조론(Plate Tectonics)에 의해 설명된다. 판 구조론에 의하면 지구의 지각은 7개의 큰 판과 여러 작은 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판들은 맨틀의 상하부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대류에 의해서 이동한다. 이러한 이동으로 인해 이 판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멀어지는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고, 이것을 각각 지진대와 화산대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하는 지진대는 환태평양 지진대(Circum-Pacific Seismic Zone)이다. 일본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의해 직



▲ 판 구조론 (출처: 지구과학개론)



▲ 맨틀 대류설 (출처: 지구과학개론)

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진대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에 인접한 상태로 영향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규모 5 정도의 지진은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지진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진 기록은 고구려 유리왕 21년(서기 2년)에 처음 등장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사기》에 97회, 《고려사》에 84회, 《조선왕조실록》에 490회 등 문헌에 다양한 지진 기록이 있다. 이 중 가장 강력했던 지진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1643년 7월 24일 울산에서 일어난 것으로, 서울과 전라도 일대에서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삼국사기》 신라본기 계공왕 15년(779)에는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백성들의 가옥이 무너지고, 죽은 이가 100여 명이나 됐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 이외에도 34년, 93년, 304년 등에도 땅이 갈라지고, 샘물이 솟아오르고, 집이 무너지고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지진, 경주 지진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이다. 경주 지진의 최대 진도는 경주, 대구 지역에서 측정된 진도 6이었으며, 부산과 울산, 창원에는 진도 5가 측정되었다. 경주 지진의 진동은 전국 대부분 지역은 물론 일본, 중국 등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강했다. 다음날인 9월 15일 집계된 지붕·담장·차량 파손과 건물 균열, 수도배관 파열 등의 재산상 피해는 5,120건에 달했고, 경주시와 울산시에 대부분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본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인 9월 19일 오후 8시 33분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또 다시 발생했고, 9월 20일에는 여진 횟수가 400회를 넘어서면서 공포를 키웠다. 한편, 9월 22일에 정부는 경주시를 최초로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수능마저 연기시킨 지진, 포항 지진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 진앙을 둔 본진 규모 5.4의 지진이다. 규모는 역대 2등이지만,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 이 지진은 무려 672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하며 110억의 피해액을 기록했던 경주 지진보다 훨씬 큰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 또한,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618가구가 위험 판정을 받아 포항시에서 마련한 임시 거처로 자리를 옮겨야만 했다. 정부는 이어지는 여진에 대비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로 연기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러한 지진 속에서 우리나라를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안전지대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진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지진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내진 설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2학년 옥재안 기자 royohk98@police.ac.kr)

지속되는 지진의 공포, 우리나라 지진 대책의 현주소는?

우리나라의 지진 경보 시스템과 건물의 내진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가져오는 지진, 그 지진을 대비하기 위한 내진 설계와 지진 경보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진에 관한 대표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진 경보 시스템과 내진 설계에 대해 다루려 한다.

지진 경보 시스템과 내진 설계

지진 경보 시스템은 P파와 S파의 속도 차이를 이용한다. 지진이 일어나면 속도가 빠르고 (초당 6km) 흔들림이 적은 P파와 속도는 비교적 느리지만 (초당 3km) 흔들림이 크고 피해량도 큰 S파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33초 내에 P파를 감지하고 지진 사실을 알려 S파 도달 10초 전에 지진 발생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파 도착 10초 전까지 지진 사실을 알릴 수 있다면 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의 90퍼센트 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기상청은 이러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까지 추가적으로 108개의 지진 관측소를 설치해 정확한 지진 관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진 경보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지진이 발생하고 도착한 후에도 건물이 잘 견딜 수 있어야 붕괴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래된 건물들과 내진설계가 부족한 건물들에 대해 큰 피해를 주었던 포항 지진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건물의 내진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내진 설계(Seismic Design)’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내진 설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로는 내진 구조가 있다. 내진 구조는 말 그대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나 내부의 시설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짓는 방식이다. 주로 건물 내내 내진벽 등의 시설을 설치해 흔들림에도 붕괴하지 않도록 짓는 것이다. 두 번째는 면진 구조이다. 면진 구조는 지진에 의한 진동의 주기를 길게 변화시켜 건축물에 가해지는 지진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설계이다. 이 방식은 건축물과 지반을 분리시키는 구조인데, 주로 고무나 구슬 등의 면진층을 설치한다. 면진층을 설치하면 지진의 진동이 완화되어 전달되므로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제진 구조는 지진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힘 또는 진동을 줄이거나 구조물의 강성, 감쇠 등을 제어해 피해를 줄이는 구조이다. 주로 건물의 옥상 등에 추나 댐퍼를 설치하고, 지진이 발생하면 이 추를 컴퓨터로 제어하여 건물의 진동 방향과 반대로 작동시킨다. 이 방식은 타이페이 101을 비롯한 많은 고층 건물들에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기준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 건물 내진 설계 기

준을 적용했다. 이는 2005년 3층 이상, 2016년 2층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현행법(국토교통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은 경주 지진 이후인 2017년부터 모든 신규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강화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 건축되었던 아파트 등의 건축물에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항지진에서 전파되었던 아파트도 1988년 이전에 설계되었던 기둥도 없이 벽체만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로 내진설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였다. 또한, 1층에 벽을 설치하지 않고 기둥만 설치하는 필로티 구조물은 내진설계를 해도 지진에 약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현행법상 내진설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은 6층 이상의 건물의 설계에 참여할 수 있고, 더 낮은 건물들은 건축구조기술사 없이 건축사들이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에서 법 조항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자주 발생하는 지진에 대처하기 위해 건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면진 구조와 제진 구조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내진 설계를 한다고 해서 지진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준비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2학년 옥재안 기자 royohk98@police.ac.kr)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지진 발생 시 상황별 대응 요령과 장소별 대응 요령을 알아보자

일상 생활 도중 갑자기 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지진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피요령을 상황별 대응 요령과 장소별 대응 요령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 대피 요령을 실시하는 학생들 (출처: 네이버 포스트)

지진 발생 시 상황별 대응 요령

지진으로 흔들릴 때, 탁자나 책상 등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하면서, 탁자 다리를 잡는다. 흔들림이 멈춘 후에는 추후 여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입구를 확보한 후 건물 밖으로 나간다. 이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리면 된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가방 또는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간판이나 유리 조각 등이 떨어질 수 있는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면서 신속하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 공공기관의 방송을 듣고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지진 발생 시 장소별 대응 요령

학교에 있을 경우, 책상 아래에서 책상 다리를 꼭 잡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키면서 운동장으로 대피하고, 백화점 또는 마트 등에 있을 경우,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대피한 후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빠져나온다. 극장이나 경기장에 있을 경우,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의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다가 안내에 따라 침착히 대피한다.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철이 멈춘 후 안내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또한,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들으며 키를 꽂아 두고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산 또는 바다에 있을 경우, 산사태나 절벽의 붕괴에 조심하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해안가에 지진해일 특보가 발동되면, 즉시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 된다.

이러한 대응 요령들을 잘 숙지하여 지진 발생 시 침착하게 대피하여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소에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한 대피 요령을 연습해 두어야 한다. 또한, 국민재난안전포탈과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지진 대비 사전체크리스트 리플릿'도 숙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3학년 김용재 기자 kyjkjh12@police.ac.kr)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누구도 조작할 수 없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금융의 미래

제200호 학보 발행 이후 많은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올림픽이 개최되었고,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한국을 뒤흔들고 놓기도 했으며, 미세먼지는 몇 달에 걸쳐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이끈 이 야기에서 빼놓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대한민국에 몰아친 ‘코인’ 광풍에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투자를 시작했고, 코인들의 요동치는 그래프에 따라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배의 가격은 코웃음 치며 넘어버리는 암호화폐의 차트를 보며 ‘흙수저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2의 튜립 버블’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가격 상승을 기원하며 외치는 ‘가즈아’라는 말이 유행하며 국회에서 울려 퍼진 일도 있었다.



▲ 암호화폐 ‘리플’의 가격 차트. 암호화폐 가격의 매우 큰 변동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TradingView 화면 캡처)

여기에서 코인은 신원불명의 인물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2009년 세계 최초로 개발된 암호화폐 ‘비트코인’에서 따온 말이다.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가상화폐라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겠지만 암호화폐라는 말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의 통일된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나, 보통은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되어 중앙의 통제 없이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교환수단으로 기능하는 전자정보’를 이른다. 많은 암호화폐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요인 중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비트코인의 암호화에 쓰인 블록체인의 기술이다. ‘공공 거래장부’로도 불리는 블록체인은 여러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이며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한다.

블록체인의 원리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적용된 비트코인을 예로 알아보자.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의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접속해 똑같은 거래장부를 나눠 보관하고 10분마다 이 장부를 갱신한다. 사용자들은 10분마다 장부의 상호 대조를 통해 기록된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새로 발생한 거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음 갱신된 거래장부를 다시 나눠 갖는다. 이때 10분에 한 번씩 생성되는 거래내역 묶음을 블록(Block)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블록이 연결된 일련의 모음(Chain)을 뜻하는 블록체

인(Blockchain)이라는 말의 유래다.

블록체인이 공개적임에도 안전한 기술이 될 수 있는 것은 과반수의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일치하는 거래장부만이 정상적인 장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을 조작하려면 전체 참여자의 과반수가 가진 정보를 동시에 수정하여야 하는데, 네트워크 계산 능력의 절반을 한 세력이 가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사용자가 많은 암호화폐의 위변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이러한 안전성 덕분에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암호화폐의 문제점과 한계

그러나 암호화폐가 기존의 화폐를 완벽히 대체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 첫 번째 이유가 해킹 문제다. 분명히 블록체인을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암호화폐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를 해킹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가 총 58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5,7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NEM을 해킹당한 사건이 있으며, 피해액의 대부분이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암호‘화폐’임에도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암호화폐 자체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수익 실현만을 위해 투자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상당수 암호화폐의 가

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이 때문에 현재 암호화폐는 거래의 매개수단으로써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지난 겨울부터 암호화폐 규제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월 15일 가상통화 실명제 추진, 암호화폐의 시세조작·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등의 방침을 발표했다.

들을 다졌기 때문이며, 또한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데에서만 블록체인의 실용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에서 블록체인이 미래의 금융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으며, 2018년 WEF에서는 가장 먼저 블록체인에 관해 다뤘을 정도로 블록체인에 관한 세계의 관심은 뜨겁다.



▲ 2016년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 내역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 (출처: 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 금융의 틀을 바꾸다

이렇듯 암호화폐의 문제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큰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암호화폐는 실패할 수 있으나 블록체인은 남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블록체인을 통해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기

우리 정부 또한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암호화폐 규제와는 별개로 취급하는 방침을 세웠으며, 정부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블록체인, 지금도 관심을 가지기엔 늦지 않은 시기로 보인다.

(2학년 채정현 기자 hyun4331@police.ac.kr)

고구려 고분에서 깨어난 평창올림픽의 ‘인면조’

〈우리 신화의 숨겨진 힘을 찾아서〉

지난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식은 전 세계적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평창올림픽의 개막식은 600억 원의 다소 낮은 비용으로 기획되었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박힐 만한 감동과 여운을 선사하였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대한민국의 선진 과학 기술을 ‘드론 오륜기’ 등으로 보여 주었고 한편으로는 한국의 유려한 미(美)를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 중에서 개막식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것은 ‘인면조’다. 개막식에서 등장한 인면조는 사람의 얼굴에 새의 몸을 한 상상 속 존재로, 송승환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인면조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전까지 인면조는 우리 국민들에게 생소하였지만 이번 행사로 널리 알려졌고, 또한 기괴하면서 신비로운 형상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목도 집중시킨 평창올림픽의 숨은 조력자다.



▲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 등장해 화제가 된 ‘인면조’의 모습. (출처: GettyImages)

전문가들은 인면조가 우리 신화의 힘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한다. 우리 신화를 전공한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

과 신동훈 교수는 “우리 신화도 충분히 문화 콘텐츠로서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신화는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는 아니다. 인면조는 생소한 반면 이와 비슷한 서양 신화의 괴수인 ‘세이렌’은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세이렌은 새의 몸에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을 가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면조’이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뱀사냥을 유혹하여 잡아먹는다는 세이렌은 스타벅스의 로고에 등장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사실 ‘신화’라고 하면 우리 신화보다는 만화책, 애니메이션 등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와 더 친숙한 편이다. 서양 신화 전문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김현 교수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미 서양의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인의 문화적 자산으로 일반화되었다”라고 한다. 어쩌서 우리 신화는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데도 불과하고 전 세계적으로서는커녕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전문가들과 서양 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다각적으로 알아보았다.

우리 신화와 서양 신화, 비슷한 듯 다른 둘

세계 공통으로 신화는 비슷한 면을 보인다. 일례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노아의 방주 홍수 신화는 우리 신화에도 남매혼 홍수 신화로 등장한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는 두 신화는 분명 차이점이 있고, 사람들의

문화와 의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길을 걸었다.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

서울대학교 김현 교수는 그리스 신화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보다 재미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보다 더 질투하고, 더 사랑하며, 때론 인간보다 철없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던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힘든 감정이나 자연 현상을 신의 이름을 빌려 상상의 나라를 펼쳤다.

반면 우리 신화의 신들은 인간을 곁에서 보듬어 주고 위로해 주는 존재이다. 건국대학교 신동훈 교수는 “우리 신화에서는 인간이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서양 신화와의 큰 차이”라고 설명한다. 즉, 서양 신화의 신은 인간의 상위 존재로서 인간 사회를 규율하는 존재인 반면 우리 신화에서는 고난을 이겨내거나 뛰어난 능력을 견지한 선한 사람이 인간 사회를 더욱 이롭게 하기 위해 신으로 발탁되는 것이다. 최근 영화 ‘신과 함께’에서는 신이 주로 인간을 벌주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데 집안을 지키는 조왕신, 축신 등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신도 사실 많다고 한다.

어째서 우리 신화는 주목받지 못했는가?

그리스 로마 신화는 기원전 8세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등을 시작으로 문학작품으로 창작되었다. 반면 우리 신화는 구전(口傳)되었다. 구비전승은 우리 신화의 매우 큰 특징이다. 우리 신화도 삼국시대 때 문서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현재 잘 전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신화는 기존의 무속 신앙에 외부에서 들어온 불교가 융합한 형태를 띠고 있다. 신동훈 교수에 따르면 제정일치 사회 때는 무속신앙, 불교 문화가 합쳐진 우리 민속 신앙이 지배 계층이 공인한 신앙이었다. 하지만 조선 시대의 유교숭배 정책, 근대화 시기의 과학 합리성에 치우친 교육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을 미신으로 생각하고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구비로 전승된 우리 신화의 이야기보따리가 손자, 손녀들의 머리맡에서 풀려지지 않은 순간부터 우리 신화는 우리의 삶에서 멀어진 것이다.

우리 신화가 나아가야 할 길, ‘스토리텔링’

신동훈 교수는 “우리 신들은 억압받고 힘든 삶을 살았던 우리 백성들에게 의지가 되었고 사랑받았다”라며 “우리 신화는 비록 정원에서 잘 가꾸어진 꽃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잡초처럼 깊게 뿌리 내려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사실 체계화된 서양 신화와 달리 글로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우리 신화가 명맥을 유지한 것은 비록 지배 계층의 지지는 받지 못했지만 일반 백성의 지지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 신화의 스토리텔

리가 되어 후손에게 전해주었다.

우리 신화는 민속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1900년대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구비전승으로 인해 신화가 방대하고 체계가 없어서 정리가 힘들었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연구 자료집을 읽기가 어려워 민간인이 접하기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 우리 신화를 민간이 접하기 쉽도록 정리하고 축약하는 사업이 진행됐으며 현재 조금씩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그 예가 영화화된 《신과 함께》이다. ‘신과 함께’는 웹툰으로 시작하여 영화화되어 큰 사랑을 받았다. 웹툰에서도 현재 우리 신화를 녹여낸 쌍갑포차, 모진전 등이 연재되어 사람들에게 민속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몇 해 전에는 신화 ‘바리공주 이야기’를 소재로 한 〈바리공주의 전설〉이라는 게임도 출시되었다. 신동훈 교수는 이것이 소위 ‘수박 겉핥기’ 식의 일시적인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각자 스토리텔러가 되어 우리 신화를 전파하고, 우리 신화의 곱데기뿐 아니라 알맹이를 읽어 우리 신화의 참된 의미와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훈 교수는 최근 도서 《스토리텔링 원론》을 출판하였는데 우리 신화의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한 소양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 기회가 되면 읽는 것을 추천한다.

(3학년 김우진 기자 woojinkim@police.ac.kr)

아산의 '엘 시스템마(EI sistema)', 온궁오케스트라

아동들에게는 기회와 꿈을,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활력을!

엘 시스템마(EI sistema)는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통한다.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베네수엘라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협동, 이해, 책임감, 소속감 등의 가치를 심어 주는 것이 엘 시스템마의 목표이다. 음악교육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음악을 위한 사회 행동'으로 불리기도 한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의 후원으로 엘 시스템마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 시스템으로 정착하였다.



▲ '꿈의 오케스트라' 로고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산시에 엘 시스템마의 기적을 꿈꾸는 오케스트라가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일환으로 창단된 온궁오케스트라가 바로 그것이다. 온궁오케스트라는 2013년 아산시가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지역거점기관으로 선정되어 창단되었고, 자립화 과정에 접어든 2016년부터는 아산시와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온궁오케스트라는 충남 아산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중 악기를 배운 경험이 없는 사회취약계층 아동을 단원으로 모집한다. 악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1인 1악기를 대여해주며 매주 2회 전문 강사와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 이 모든 과정은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온궁오케스트라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온궁오케스트라의 김성민 음악감독과 지난 3월 19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언제부터 온궁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있으셨고, 어떤 계기로 지원하게 되셨나요?

작년에 아산문화재단에서 낸 음악감독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올해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있던 경험이 많아 자신 있게 온궁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지원했습니다. 온궁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배울 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연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Q 신규 단원들은 얼마나 자주 선발하나요?

기존에 있었던 단원들이 고학년이 되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지는 인원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계속 모집합니다.

매년 초에 정기모집이 있고, 이 외에도 인원이 너무 부족할 때는 추가모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합주연습중인 온궁오케스트라

Q 새로 들어온 단원들은 기존 단원들과 실력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신규 단원들을 위한 추가 교육도 이루어지나요?

새로 들어온 단원과 기존 단원들 간에는 당연히 실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존 단원들은 실력에 맞는 곡을 연습시키고 신규 단원들은 따로 기초부터 다지기 시작하는데, 음계연습, 음악 이론 교육 등을 하며 1년 정도는 레슨 위주로 교육합니다. 또 합주연습 이전 1시간과 이후 1시간에 수준별로 선생님들께서 레슨을 해주십니다. 그 시간에 잘하는 친구들이 신규 단원들의 연습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레슨만 받으면 재미가 없고 신규 단원들도 합주를 해야 하니까 악보를 쉽게 편곡해서 수준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Q 연주회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정기 연주회는 1년에 한 번, 매년 12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8월 사이에 향상연주회를 합니다.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따로 어린이날 특별 공연이나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Q 새로운 악기를 배우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나요?

어떤 악기든지 처음 배울 때 힘든 점은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음계만 연습하고 손가락도 아프다 보니까 중간에 힘들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달래면서 같이 이끌어 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음악감독으로서 온궁 오케스트라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음악회를 해도 거의 부모님만 오십니다. 가끔씩은 '기껏해야 학예회 수준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력을 키워서 문화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주회 때 되도록 편곡하지 않은 오리지널 악보의 교향곡을 연주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온궁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고 하면 아산



▲ 김성민 음악감독(왼쪽)과 이예림 기자

시민 여러분들이 '오고 싶다.'고 생각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온궁오케스트라의 연습을 참관하며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며 악기를 연주하고, 간식을 나누어 먹고 수업을 듣는 모습을 보았다. 이러한 교육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이 더 문화적으로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에서 엘 시스템마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연습을 계속하는 온궁오케스트라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에는 온궁오케스트라의 연주회를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2학년 이예림 기자
yr4978@police.ac.kr〉

우리의 일상을 담은 스크린, 다큐멘터리 영화의 매력 속으로

설 연휴는 국내 영화계에서 놓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설에 극장가는 이렇다 할 '특수(特需)'를 누리지 못했다. 그 이유를 두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영화시장 콘텐츠의 부재 등 여러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색적인 행보를 보이는 작품이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B급 며느리>가 바로 그것이다. <B급 며느리>는 개봉 초기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으나 관객들의 입소문과 지지에 힘입어 개봉 3주차에 이례적으로 상영관을 확대하고 장기 상영에 돌입했다. 다큐멘터리 영화가 관객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09년 개봉한 <워낭소리>는 17일 동안 국내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켰고, 2014년에 개봉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또한 6일 동안 1위 자리를 지키며 흥행에 성공했다. 쏟아지는 상업 영화들 사이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B급 며느리>, <워낭소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세 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흥행요소를 파헤쳐 보았다.

〈B급 며느리〉, "추석 때 시댁에 안 갔어요. 완벽한 추석을 보냈죠."

<B급 며느리>는 고부갈등을 소재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영화는 가부장제도의 틀 안에서 살아온 시어머니와 그러한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며느리의 전형적인 고부갈등을 담고 있다. <B급 며느리>는 며느리 김진영



▲ 영화 <B급 며느리> 포스터

의 이야기이자 시어머니 조경숙의 이야기이며, 아내와 엄마의 갈등 속에서 고통 받는 감독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영화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인터뷰가 이어지는 형식이며 각 인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카메라를 들고 이야기를 듣는 선호빈 감독과 스크린 바깥에서 지켜보는 관객들은 어느 한 쪽의 편도 들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같은 처지라도 선호빈 감독은 스크린 속에서 고통 받고 관객들은 스크린 바깥에서 공감하고, 웃는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찰리 채플린의 명언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B급 며느리>는 해피엔딩이 아니다. 영화 속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고부갈등은 진행 중이다. 영



▲ 영화 <워낭소리> 포스터

화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지만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앞으로 갈등을 대하는 시야가 넓어질 것 같다.

〈워낭소리〉, 소와 사람 사이의 우정

농부 최 노인에게는 30년을 부린 소 한 마리가 있다. 소의 수명은 보통 15년인데 이 소의 나이는 무려 마흔 살이다. 이 소는 최 노인의 친구이자 최고의 농기구이다. 최 노인은 귀가 잘 들리지 않지만 소의 워낭소리만큼은 귀신같이 듣고 소 먹일 풀을 위해 매일같이 산을 오른다. 그러던 어느 봄, 최 노인은 수의사에게 소가 올 해를 넘길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영화는 그 때부터의 이야기이다. 사람의 인생보다 더한 드라마는 없다는 말이 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묵묵히 돌아다니는 최 노인과 나



▲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포스터

이 많은 소, 최 노인에게 잔소리를 퍼붓는 할머니, 소의 목에서 울리는 워낭소리는 좋은 연기자, 기가 막힌 각본이나 대사, 전문적인 음악감독의 작업도 무색하게 만든다. 관객들은 오히려 꾸밈이 없고 연출이 없는 모습에 감동을 받는 것이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우리를 울리는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

결혼 76년차인 강계열 할머니와 조병만 할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진모영 감독은 TV프로그램 <인간극장>에 출연하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고 TV 방영 한 번에 그치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하여 영화로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서로에게 장난을 치시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은 관객들을 미소 짓게 했고, 키우던 개 '꼬마'가 죽었을 때 관객들도 할머니와 함께 울었다. 꽃이 피고 지는 동안 할아버지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키우던 개 '공순이'는 새 생명을 잉태했다. 슬프고, 또 기쁜 상황이지만 삶과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다. 우리는 삶에 너무 집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다루기도 한다. 그렇게 흔들리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꽃이나 나뭇잎이고 다 사람과 똑같아요." 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오래 오래 기억 속에 남을 것 같다.

극의 흐름이 빠른 영화와 달리, 다큐멘터리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때로는 지루한 순간도 있다. 그렇지만 꾸밈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연기나 연출도 무색하게 만든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점은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 속 인물들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비교하여 생각해보게 만든다. <B급 며느리>를 본 관객들은 시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고,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본 관객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늙어갈 꿈을 꾸게 될 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담긴 '실현 가능한' 판타지기에 블록버스터 영화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3학년 송채은 기자
20160047@police.ac.kr〉